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연구: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윤석**

최근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 교육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졸업 이후 취업시장은 좁기 만하다. 그리고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신혼집 마련은 요원하기만 하다. 때문에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바라보는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태도를 살펴본다. 2008년 사회조사에서 고등학교 재학생 1,727명과 이들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8년 사회조사 응답자들은 자녀의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 미취업 시 용돈, 결혼준비에 부모가 어느 정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답했다. 분석 결과 세 가족 성원들은 대체로 네 항목 모두에서 부모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모의 경제적 의무를 성인이 이전 또는 대학까지로 한정짓는 태도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세 가족 성원들의 태도를 비교해보니 과반수 가족들이 지원 정도에 대한 태도가 일치하였다.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 다양한 변수들이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와 가족 간 태도의 일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녀의 특징을 보면 딸보다는 아들이 그리고 보수적인 청소년들이 부모의 지원 의무를 넓게 보고 있었다. 부모의 특징을 보면 만족스러운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높은 사회적 위치가 적극적인 세대 간 지원 태도와 정적 관련을 맺고 있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발견이 갖는 사회적 함의를 논의하면서 끝을 맺는다.

핵심단어: 부모, 성인자녀, 경제적 지원

I. 서론

성인으로서의 전이(transition to adulthood)는 개인이 졸업, 취업, 결혼을 거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해나가는 과정을 뜻한다(Hogan and Astone, 1986).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자립은 자율적인 성인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여

* 이 논문은 2010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 교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 yslee@uos.ac.kr

겨진다. 대부분 부모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이 금전적 도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Descartes, 2006). 그들은 학업을 마친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벌리면 자녀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고 실망한다(Pillemer and Suitor, 2002).

하지만 부모의 희망과는 반대로 최근 성인자녀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다(Buchmann and Kriesi, 2011). 우선 대학 교육비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대학등록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원이나 연수 등 학교 밖에서 얻는 교육은 취업에 점차 필수가 되고 있다. 여기에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확대되어 대학원 교육의 필요성도 뚜렷해지고 있다(진미석, 2006). 학업을 마치는데 드는 비용은 늘어가지만 졸업 후 취업은 반대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남재량, 2006). 갓 학교를 마친 젊은이들은 오랜 시간을 노동시장에서 대기하고 있거나 낮은 임금이나 나쁜 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나 '알바'를 경력을 위해 받아들인다. 어렵게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올라만 가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신혼집을 신혼부부의 힘만으로 얻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배희선, 2008). 녹록하지 않은 현실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얻지 못하자 어쩔 수 없이 부모들이 지갑을 열게 된다. 사실 부모의 지원을 받는 성인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성인자녀들에 비해 더 높은 삶의 질과 직업적 성공을 누리게 된다(Semyonov and Newin-Epstein, 2001; Spilerman, 2004). 분명히 부모의 지원은 성인자녀들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안녕을 중시하는 부모들은 자연히 자녀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된다. 사실 금전적으로 어려운 성인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선진국(e.g., Berry, 2008; Grundy and Henretta, 2006)은 물론 개발도상국(e.g., Frankenberg, Lillard and Willis, 2002)에서도 이러한 세대 간 이전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은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를 연구한다. 현재 부모세대들은 성인이 된 자녀가 받는 부모의 지원을 부정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성장을 했다. 그렇지만 최근 성인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이 탐탁하지는 않지만 자녀들을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김지경·송은경, 2004). 이에 따라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관련 태도 역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 세대 간 지원에 대한 태도는 지원 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부모의 경제적 의무 범위에 대한 태도는 개인의 소비와 저축 행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

다. 본 논문은 2008년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세대 간 지원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각 가구에서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태도를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세 가족구성원과 가구의 특징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II. 이전 연구 검토

1. 청년기 경제적 어려움

새로운 세기를 전후하여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들은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제일 먼저 급격하게 오른 대학 교육비를 지적할 수 있다. 고졸자들은 대졸자에 비해 취업기회에 큰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대부분 상급학교에 진학을 원하고 있다. 대학교로 진학한 고등학교 졸업자는 1990년에는 33.2%였으나 2000년에는 68.0%, 2010년에는 79.0%였다. 이제는 고졸자 대부분이 대학을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도 크게 증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의 경우 2005년 등록금 수준을 100으로 볼 때 1980년에는 11.6, 1990년에는 27.3, 2000년에는 71.4, 2010년에는 126.6이다. 지난 30년간 10배가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학 등록금에 대한 공적 지원은 미비하다. 정부 장학금은 공공교육비의 4.4%로 OECD 평균인 11.4%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학자금 대출 역시 5.7%로 OECD 평균 8.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결국 대학 교육비는 대부분 학생의 부모가 감당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세대주가 한 달 평균 대학과 대학원에 다니는 가구원을 위해 쓴 교육비가 2005년 8만4001원에서 2010년 14만8522원으로 1.8배가 늘었다.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고등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4.4%에서 2010년 6.4%로 높아졌다.

게다가 많은 대학생들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취업하기 어렵다고 느껴서 여러 학원들을 다니거나 심지어 해외에도 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09년 4월 어학연수 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생은 9만8644명이었다. 보통 어학연수는 대학 때 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대학 재학생인 198만4043명 대비 어학연수생 비율은 약 5%이다. 대학생 20명 중 1명은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셈이다. 교과부가 유학생 현황을 공식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해외 어학연수에 장학금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경비는 고스

란히 부모의 부담이 된다.

더군다나 대학 졸업이 곧 정규 교육의 끝인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 이공계열을 중심으로 전문지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대되어 석사나 박사 학위가 필수인 분야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원생의 수는 크게 늘어났다. 대학원생은 1980년에는 33,939명, 1990년에는 87,163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229,437명, 2010년에는 316,633명이다. 20년 간 363%, 10년 간 38%가 증가했다. 대체로 대학원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 장학금 혜택도 적다. 결국 대학원 교육비 역시 교육을 받는 개인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이 끝난 후에도 경제적 자립은 요원하기만 하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20대 청년들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전 4% 정도를 유지하다가 외환위기와 함께 급증하여 1998년에는 14%에 육박하였다. 이후 실업률은 점차 하락하였지만 2003년 이후에도 여전히 8%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막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매우 심하다. 학업을 마친지 3달 이내로 규정된 신규 졸업자들을 연구한 남재량(2006)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실업률이 신규 고졸자는 22.7%, 신규 전문대졸자는 23.7%, 신규 대졸자는 30.9%였다. 최근까지 이러한 경향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실업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낮다고 판단하고 시간제나 계약제 업종에서라도 취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은 용돈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렵다.

학교를 졸업한 성인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은 결혼비용 일 것이다(유홍준·현성민, 2010). 결혼식 행사 및 신혼집 마련을 위해 큰 목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결혼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2010)가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평균 결혼비용은 2000년 8278만원에서 2009년 1억7245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신혼집 마련에 드는 비용 때문이다. 신혼집은 2000년에는 4629만원으로 전체 비용의 55.9%를 차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1억2714만원으로 72.7%를 차지하였다. 결혼준비 비용은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감당하기는 어렵다. 결국 부모의 도움과 축의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이기춘·조은정, 1992). 2009년 주택마련 비용 중 6365만원 만 부부가 준비했으며 5486만원은 부모가 도와주었으며 863만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았다(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10).

2. 부모의 경제적 지원

한국에서 교육, 취업, 결혼 등 중요한 생애사건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자원이 필요하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증가하는 교육비의 부담(Bozick and Stefanie, 2011), 어려워진 청년들의 취업(Danziger and Ratner, 2010), 치솟는 주택구입 가격(Hughes, 2003) 등으로 세계 많은 젊은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많은 나라 부모들은 성인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 대만에서는 노인 열 명 중 한 명은 자녀나 손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며 필리핀에서는 노부모 열 명 중 세 명은 따로 사는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다(Biddlecom, Chayovan and Ofstedal, 2002; Natividad and Cruz, 1997). 인도네시아는 15세 이상 자녀가 있는 부모들 중 43.5%가 1년 동안 자녀들에게 평균 \$287.13를 주었다(Frankenber, Lillard and Willis, 2002).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선진국은 더욱 많은 부모가 성인기 자녀들을 도와주고 있다. 따로 살고 있는 18세 이상 4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연구에 따르면 1년 사이에 부모 다섯 중 두 부모는 성인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으면 지원액은 평균 \$3,634였다(Berry, 2008).

한국도 이러한 세계적 경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 45세 이상 중·고령자들을 조사한 한국 고령화패널자료를 분석한 연구(Kim, 2007)에 따르면 응답자 중 11.4%가 조사 이전 1년 사이에 따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었다. 자녀들이 받은 금액은 평균 260만원이었다. 서울과 서울 근교 신도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부모의 자료를 분석한 배희선(2008)에 따르면 부모들은 모든 성인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평균 교육비용 3,570만원, 결혼비용 5,766만원, 주거비용, 4,278만원 등 총 1억6485만원을 이전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원은 어느 부모가 주는가? 무엇보다도 부모의 경제적 위치가 중요하다. 자녀들을 도와줄 여력이 있는 부모들이 성인자녀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은 세대 간 지원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 부모의 자산이나 수입이 많을수록 성인자녀들은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Berry, 2008; Frankenber and Lillard, 2002).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이 된 자녀들이 지원을 받을 확률은 커지게 된다(Rossi and Rossi, 1990). 그러면 이러한 지원은 어느 자녀가 받는가? 금전적 내리사랑의 주요 동인은 자녀의 금전적 필요성이다. 때문에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자녀들이 최대 수혜자가

된다. 예를 들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해고를 당한 자녀, 이혼이나 사별을 한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다(Altonji Hayashi and Kotlikoff, 1997).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을 별로 받지 않고 있다.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수입이 많은 성인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지원을 거의 받지 않는다(Cox, 1987; McGarry and Schoeni, 1997).

경제적 변수 이외에 두 세대의 다른 특징들도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나이나 건강, 자녀의 수 그리고 두 세대의 관계 등이다. 부모의 나이가 많아지거나 건강이 나빠질수록 세대 간 지원은 줄어든다(Berry, 2008).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Attias-Donfut and Wolff, 2000). 그리고 두 세대가 관계가 좋을수록 그리고 가까이 살수록 부모가 지원할 가능성은 높아진다(Ploeg, Campbell, Denton, Joshi and Davies, 2004).

3.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

청년들이 성인기에 취득해야 할 역할들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획득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은 모든 이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Shanahan, 2000).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러한 규범에 맞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길 원한다(이선아·김현주·이여봉, 2006). 이에 맞춰서 자녀들도 경제적 그리고 거주 독립을 진정한 성인이 되기 위한 실제적 목표로 인정한다(은기수·이윤석, 2005; Descartes, 2006). 그러나 많은 성인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때문에 부모들은 미성년 때처럼 성인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자녀에서 부모로의 지원보다는 부모에서 자녀로의 지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Ward, Logan and Spitze, 1992).

이러한 행동의 변화는 태도의 변화를 낳고 있다. 미국 부모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성인이 된 자녀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더 크게 느낀다(Goldscheider and Lawton, 1998).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현실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부모의 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은 부모의 지원을 받는 청년들보다 교육을 빨리 끝내고 취업 탐색 기간을 줄인다(Shanahan, 2000). 그 결과 수입도 작고 승진 기회도 적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부모의 지원을 받는 자녀들은 나중에 훨씬 높은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Semyonov and

Lewin-Epstein, 2001). 특히 집 구입에 대한 지원이 결정적이다. 많은 부모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Ploeg, Campbell, Denton, Joshi and Davies, 2004).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는 직장과 가족을 시작할 때이지 완전히 자리를 잡은 나중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몇몇 부모들은 이미 많은 금전적 도움을 주고 있어도 자녀의 정착 시기에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기도 한다(Descartes, 2006). 많은 부모들은 성인의 독립과 자립을 요구하는 사회적 규범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녀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고려 때문에 지원의 필요성을 점점 인정하고 있다.

자녀들은 윗세대로부터의 지원에 대해 부모에 보다 거부감이 덜 한 편이다. 아무래도 세대 간 지원 논의에서 수혜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어려운 삶을 살 당사자인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성인자녀에 대해 부모의 경제적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2003년 시행된 전국가족조사에 따르면 10대 청소년들 중 90%와 80%는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에 대해 전적으로 또는 일부라도 책임져야 한다고 대답했다(여성부, 2003). 교육이 끝난 후에도 부모의 의무는 여전히 계속된다고 믿는다. 같은 조사에서 10대 청소년들 중 75%와 85%는 부모가 자녀의 미취업 시 용돈과 혼인 준비를 전적으로 또는 일부라도 맡아야 한다고 대답했다(여성부, 2003).

이 때문에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태도에는 대체로 뚜렷한 세대 차이가 존재한다. 부모보다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원 의무를 더욱 넓게 보고 있다(Goldscheider, Thornton and Yang, 2001). 특히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들은 지원의 의무감을 훨씬 덜 느낀다. 반면 자녀들은 혼인 상태에 상관없이 자녀가 어려울 경우 부모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래서 여전히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과 이들을 도와줘야 할 부모들은 갈등을 겪기도 한다. 특히 자녀가 부모가 희망과 요구에 반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갈등은 크게 증폭된다. 예를 들면 도움을 받고 있는 자녀가 도움을 주고 있는 부모가 원하는 계약직이나 시간제 취업 자리를 거부할 경우이다. 다만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당연시한다(Goldscheider, Thornton and Yang, 2001). 두 세대 모두 대학 학력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모두 부모는 당연히 자녀의 대학교 교육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4. 연구문제

최근 몇 가지 이유로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금전적 지원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연구가 늘고 있다. 첫째, 성인자녀에 대해 부모가 경제적 의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는 당연히 부모의 세대 간 지원 여부에 크게 영향을 준다(Burr and Mutchler, 1999; Hayhoe and Stevenson, 2007). 부모와 자식에 대한 지원 의무를 강하게 믿는 집단은 물질적, 도구적, 감정적 지원 교환이 활발하다(Silverstein and Bengtson, 1997). 둘째, 자식에 대한 경제적 의무 범위는 부모가 수입을 소비하거나 저축할 때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큰 목돈이 드는 자녀의 전문교육이나 혼인준비를 떠맡아야 한다고 믿는 부모들은 현재를 위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늘리게 될 것이다. 셋째, 자식과 부모의 태도 일치 여부는 세대 간 지원을 둘러싼 갈등을 예측해볼 수 있다(Goldscheider, Thornton and Yang, 2001). 자녀는 부모의 지원을 당연히 하는데 부모가 지원에 소극적이면 두 세대 간 큰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세 가족구성원- 어머니, 아버지, 자녀 -들이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금전적 도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연구한다.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두 세대가 부모의 경제적 의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태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본다. 세대 간 간극의 크기를 통해 성인자녀의 삶에 점차 중요해지는 부모의 지원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갈등의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다.

Ⅲ. 자료, 변수, 방법

1. 자료와 대상

본 연구는 2008년 사회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통계청은 사회적 관심 사항과 삶의 질에 관한 사항 등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사회조사를 매년 실시한다¹⁾. 2008년 이후부터 매해 교육, 환경, 보건 등 10개 부문 중 5개 부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문별 조사주기를 2년으로 정하였다. 2008년 사회조사는 교육, 안전, 환경, 보건, 가족 부문이

1) 2008년부터 본 조사는 사회통계조사에서 사회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포함되었다. 이 5개 부문 중 가족 관련 문항에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²⁾. 2008년 사회조사는 전국에서 약 20,000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상주 가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 조사 담당원들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부는 자기 기입식 조사가 병행되었다. 5개 주제를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 안전, 환경을 다룬 1차 조사는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그리고 보건, 가족을 다룬 2차 조사는 6월 24일부터 7월 2일까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2차 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범위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의 태도를 다룬다. 따라서 조사대상 가구원들 중 청소년과 부모를 가려내야 한다. 2008년 사회조사 참여자들은 모두 가구주와의 관계(예를 들어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가구주의 부모 등)를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자식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구주의 자녀인 청소년들과 가구주와 가구주 배우자인 청소년의 부모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2008년 사회조사 참여자 중 자신을 가구주의 자녀라고 답한 15세 이상 18세 이하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2,107명이다. 최종 표집에는 이 중 부모 중 한 분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380명을 제외한 1,727명의 고등학생과 이들의 부모들이 포함되었다. 이 최종 표본에 혈연관계에 있는 청소년 3명과 2명이 포함된 가구가 각각 1개와 181개가 있다. 이들의 부모는 당연히 같다. 때문에 최종 표본에는 1,545명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포함되었다.

2. 변수

모든 2008년 사회조사 참여자들은 (1) 자녀의 대학 교육비, (2)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3) 미취업 성인자녀(미혼)의 용돈, (4) 자녀 결혼준비(혼수 및 신혼집마련) 비용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 받았다. 이 문항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원,’ ‘일부 지원,’ ‘지원하지 않음’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다. 이 네 문항에 대한 대답을 통해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세 가족가구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본다.

세대 사이 지원에 대한 태도 관련 경험적 연구들은 자녀, 부모, 가구의 특징에 따라 태도가 다르다고 보고한다(Burr and Mutchler, 1999; Goldscheider,

2) 2010년 사회조사에도 가족 부문이 포함되었지만 자녀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문항이 빠져있다.

Thornton and Yang,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녀의 특징은 성별, 연령, 성역할 태도가 사용된다. 성별은 여성을 준거집단으로 하는 가변수이다. 연령은 15부터 18까지 달라지는 연속변수이다. 성역할 태도는 '아버지는 직업을 가지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에 대한 동의 정도로 측정한다. '전적으로 동의'(=1)에서 '전적으로 반대'(=4)로 변화하는 4점 척도를 사용한다.

부모의 특징은 연령, 교육, 직업, 성역할 태도, 자녀와의 관계를 사용한다. 대체적으로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징들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때문에 다변량분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특징을 연속변수로 포함시킬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부모의 특징 중 연속변수들은 범주변수로 변환하여 사용한다. 연령은 40세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41세~45세, 46세~50세, 51세 이상으로 분류한다. 교육은 중학교 이하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고등학교,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이상으로 구분한다. 직업은 미취업자를 준거집단으로 관리 및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및 기능직, 1차 산업 종사자로 나눈다. 성역할 태도는 자녀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직업을 가지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라는 문장에 대한 동의 정도를 사용한다. 자녀와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로 측정한다. 원조사에서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하여 '만족'으로 하고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을 합하여 '불만족'으로 한 가변수를 사용한다. 만족이 준거집단이다.

가족 및 가구의 특징으로는 자녀의 수, 노부모 동거 여부, 가구 점유 형태, 지역의 특성을 사용한다. 자녀의 수는 가구주의 모든 자녀수를 의미하는 연속변수를 이용한다. 딸과 아들의 수는 서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최종분석에서는 둘을 합친 자녀의 수를 사용하였다. 노부모 동거 여부는 가구주 또는 가구주 배우자의 부모님들이 같이 사는지 여부를 가리키는 가변수를 사용한다. 가구 점유 형태는 자기 집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전세와 월세를 구분한다. 지역의 특성은 사는 곳이 농촌 지역인지를 나타낸다.

다음 표는 연구대상자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가족구성원의 특징

청소년a	남성	53.0	
	연령	16.3	
	성역할 태도	2.3	
어머니b	연령	40세 이하	16.7
		41-45세	52.3
		46-50세	26.1
		51세 이상	4.9
	교육	중학교 이하	11.1
		고등학교	61.8
		2년제 대학	9.6
		4년제 대학 이상	17.4
	직업	무직	47.2
		전문직 또는 관리직	5.4
사무직		11.1	
서비스직 또는 노동직		33.7	
1차산업직		2.7	
성역할 태도	2.1		
자녀와의 관계: 불만족	25.9		
아버지b	연령	40세 이하	3.6
		41-45세	31.7
		46-50세	50.0
		51세 이상	14.7
	교육	중학교 이하	9.1
		고등학교	47.1
		2년제 대학	13.1
		4년제 대학 이상	30.7
	직업	무직	4.7
		전문직 또는 관리직	15.3
사무직		25.2	
서비스직 또는 노동직		50.2	
1차산업직		4.2	
성역할태도	1.9		
자녀와의 관계: 불만족	26.2		
가구 및 가족b	자녀의수	2.0	
	노부모 동거 여부	6.6	
	가구점유형태	자가	74.1
		전세	16.6
		월세	9.3
농촌	12.6		

주: 1) 범주변수는 비율(%)이며 연속변수는 평균

2) (1) a: N = 1,727 (2) b: N = 1,545

전체 고등학생 재학생들 중 남성은 53.0%이며 여성은 47.0%이다. 이들의 평

균 연령은 16.3세이다. 2008년 사회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다. 아버지는 직업을 가지고, 어머니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 평균은 2.3이다. 이 문장에 대해 17.7%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47.7%는 약간 동의한다.

고등학생들의 어머니는 평균 44.0세로 41세에서 45세가 52.3%이며 46세에서 50세가 26.1%이다. 청소년들의 어머니들 중 61.8%는 고등학교까지 다녔으며 17.4%는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녔다. 이 중년 어머니들 중 47.2%는 전업 주부이며 33.7%는 서비스직이나 단순직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직이나 관리직 등 고위직에 종사하는 어머니는 5.4%에 불과하다. 성역할 태도에서 대해 이 어머니들은 자녀들보다 더 전통적이다. 성역할 태도의 응답 평균은 2.1이며 23.0%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52.5%가 약간 동의한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보통이나 불만이라고 대답한 어머니들은 25.9%이다.

연구 대상 청소년들의 아버지는 평균 47.0세로 46세에서 50세가 50.0%이며 41세에서 45세가 31.7%이다. 교육수준은 47.1%가 고등학교까지 마쳤으며 30.7%가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소지하고 있다. 직업은 50.2%가 서비스직 또는 노동직에 그리고 25.2%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직이나 관리직 종사자는 15.3%이다. 성역할태도는 어머니보다 더 보수적이다. 성역할태도의 응답 평균은 1.9이며 27.4%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53.5%가 약간 동의한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불만족 정도는 어머니와 비슷하다. 전체 아버지 중 26.2%가 자녀와의 관계가 보통이거나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연구대상 가족들은 평균 2.0명의 자녀가 있다. 2명인 경우가 61.2%, 1명인 경우가 22.1%, 3명인 경우가 14.9%이다. 모든 가족 중 6.6%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노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3세대 이상 가구이다. 전체 가구 중 73.7%는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16.6%는 전세이며 9.3%는 월세이다. 그리고 12.6%는 농촌 지역에 살고 있다.

3. 방법

먼저 자녀,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미취업 성인자녀의 용돈, 자녀 결혼준비 비용에 대해 부모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빈도(frequencies)와 평균(means)을 통해 살펴본다. 또 네 가지 항목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를 각각 비교해본다.

그리고 세 구성원의 네 가지 태도가 자녀, 어머니, 아버지, 가구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다변량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종속변수인 태도의 응답은 3점 척도인 서열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로지스틱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기법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태도 차이가 다양한 배경변수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본다. 세대 간 태도의 차이 중 부모가 자녀보다 더 많은 지원을 생각하는 경우보다 자녀가 부모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이다. 때문에 자녀가 부모보다 부모의 경제적 의무 범위를 더 넓게 생각하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는 가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변량 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서는 종속변수가 가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기법을 사용한다.

IV. 분석

1.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

먼저 자녀,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본다. 다음 표는 자녀, 어머니, 아버지 태도의 빈도와 평균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가족구성원들의 태도

	자녀의 대학 교육비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미취업 성인자녀(미혼)의 용돈			자녀 결혼준비(혼수 및 신혼집) 비용					
부모가 지원하지 않음	1.1	0.5	0.4	15.1	14.5	13.5	27.1	27.4	27.0	11.6	11.0	11.4			
부모가 일부 지원	39.1	30.8	27.9	59.9	66.5	62.7	56.6	59.0	57.9	77.4	81.5	79.7			
부모가 전적으로 지원	59.8	68.8	71.7	25.0	18.9	23.8	16.3	13.7	15.2	11.0	7.5	8.9			
평균	2.59	2.68	2.71	ABC	2.10	2.04	2.10	AC	1.89	1.86	1.88	1.99	1.96	1.98	A

주: 1) 태도 비교에서 A는 자녀와 어머니가, B는 자녀와 아버지가, C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경우

먼저 대학과 대학원 교육비를 보자.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자녀, 어머니, 아버지는 대체로 성인자녀의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부모의 의무로 여긴다(Aquilino, 2005). 대학 교육의 경우 자녀의 59.8%, 어머니의 68.8%, 아버지의 71.7%는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하며 39.1%, 30.8%, 27.9%는 부모가 일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대답했다. 한국에서 대학 교육 여부는 승진(장지연·양수경, 2007)이나 임금(최강식·정진호, 2003) 등 경제적 위치는 물론 문화적 취향(장미혜, 2002)이나 인간관계(정병은·이기홍, 2009) 등 삶의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대학까지 다니기를 원하며(김종백·김준엽, 2009) 그래서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보조는 양육의 의무사항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 가족구성원들은 모두 대학원 교육 역시 부모가 모른 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59.9%, 66.5%, 62.7%는 부모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줘야하며 25.0%, 18.9%, 23.8%는 부모가 전적으로 떠맡아야 한다고 믿는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80% 정도가 대학을 갈 정도로 대학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대학보다 한 단계 위인 대학원 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 게다가 이공계를 중심으로 특정 분야에 깊은 지식과 연구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졌다. 이에 따라 대학원 학생의 수는 급격히 팽창했다. 점점 대학원 과정이 꼭 거쳐야 할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많은 부모나 자녀들이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지원을 부모의 의무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학업을 마친 후 겪을 수 있는 미취업 성인자녀의 용돈과 자녀 결혼준비 비용을 살펴보자. 많은 자녀와 부모는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의무는 계속된다고 생각한다. 자녀와 부모 과반수는 미취업 자녀의 용돈도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믿는다. 자녀와 부모 10명 중 6명 정도(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56.6%, 59.0%, 57.9%)는 부모가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에게 용돈을 일부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1990년대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들은 매우 좁아진 취업의 기회 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다(남재량, 2006). 학업을 마치고 바로 취직을 하기는 무척 어렵다. 더군다나 신규 졸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취직자리도 많은 경우 인턴 같은 계약직이나 단순 판매직이다.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학원을 다니고 이력서를 작성하는 등 여전히 노동시장에 머물러 있다(반정호·김경화·김경휘, 2005). 취업 준비 중인 자녀에게 부모가 용돈을 줘야하다는 태도는 취업이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자녀와 부모 과반수는 자녀의 결혼준비 역시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믿는

다. 자녀와 부모 10명 중 8명 정도(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77.4%, 81.5%, 79.7%)는 부모가 결혼준비를 하고 있는 자녀에게 혼인비용 일부를 건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부동산 비용으로 결혼비용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10). 이러한 증가 추세는 자녀들의 결혼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부모들은 자신들이 결혼할 때 주택 수급도 비교적 안정적이어서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은 더욱 클 수 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많은 한국인들이 가족관계, 특히나 부모와 자식 관계를 이상화하여 원래 생각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성공을 위한 부모의 희생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사교육에 가계 경제 수준을 넘어서는 투자를 하기도 하고(Park and Abelmann, 2004), 자식과 배우자를 해외에 보내고 혼자 사는 외로움도 감수한다(Lee and Koo, 2006). 그리고 자녀들도 이러한 부모의 희생을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러한 태도로 인해 미래에 벌어질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원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 가족구성원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알기 위해 t-test를 통해 평균값을 비교해보았다. 자녀와 어머니의 의견이 가장 많이 달랐다. 어머니는 자녀보다 자녀의 대학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더 생각하는 반면 자녀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대학원 교육과 결혼준비에 부모가 도움을 줘야 한다는 더 믿는다. 자녀를 딸과 아들로 나눠서 보니 이러한 차이는 자녀가 아들인 경우 더욱 뚜렷했다. 대학 교육의 경우 딸과 어머니의 태도 차이와 아들과 어머니의 태도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하지만 대학원 교육과 결혼준비의 경우 아들과 어머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t = 3.51, p = .00$; $t = 2.15, p = .03$). 딸과 어머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 = 1.04, p = .30$; $t = .87, p = .38$). 일반적으로 딸이 아들보다 부모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며(이여봉·이선이·김현주, 2008), 상호작용이 잦을수록 세대 간 태도의 차이가 줄어들는다(Lee, 2007). 딸과 아들에 대한 본 결과는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와의 상호작용 차이로 이해할 수 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지원 태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자녀의 교육에 경제적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직장경험이나 사회생활을 통해서 학력의 중요성을 더 자주 느꼈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 수준은 취업, 수입, 승진 등 경제적 위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혼인시장에서의 위치 등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차이를 피부로 느껴왔던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자녀와 아버지의 대학 교육에 대한 차이 역시 비슷한 이유에서 연유할 것이다. 자녀보다 아버지가 자녀의 대학 교육은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다. 학력의 차이를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아버지가 자녀보다 대학 교육을 부모의 양육 의무 사항 중 하나라고 더욱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의 일치 정도

세 가족구성원 간 태도의 일치 정도는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부모의 지원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어디까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족구성원들의 태도를 비교해보았다.

<표 3> 가족구성원들의 태도 일치 여부 (%)

	더 많은 지원 생각하는 가족구성원	자녀의 대학 교육비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미취업 성인자녀 (미혼)의 용돈	자녀 결혼준비 (혼수 및 신혼집) 비용
어머니 vs. 자녀	어머니	22.3	19.5	21.8	13.0
	일치	64.6	56.1	53.6	71.3
	자녀	13.1	24.4	24.6	15.8
아버지 vs. 자녀	아버지	24.8	22.8	23.1	14.3
	일치	62.7	55.4	52.1	69.8
	자녀	12.5	21.9	24.8	15.9
어머니 vs. 아버지	아버지	12.9	19.2	17.2	10.4
	일치	77.0	67.1	68.0	79.7
	어머니	10.2	13.7	14.8	9.9

자녀, 어머니, 아버지 간 의견 일치 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네 항목의 모든 비교에서 과반수가 의견 일치를 보였다. 아마도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후 많은 부모와 자녀가 이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래서 각 사안에 대해 세대 간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듯하다. 특히 결혼준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세 가족구성원들은 매우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었다. 자녀와 어머니의 71.3%, 자녀와 아버지의 69.8%, 어머니와 아버지의 79.7%가 부모의 자녀 결혼준비에 대한 경제적 의무 범위를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일정 부분 부담했었으며 이는 당연한 부모의 의무조항이라고 받아들였다(이기춘·조은정, 1992; 정순희·선진영, 1997). 세대 간 높은 일치 정도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래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대학원 교육에 대해 24.4%와 21.9%의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높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구직 중 용돈에 대해 24.6%와 24.8%의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가 염두에 둔 수준보다 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원 교육이나 미취업 자녀의 용돈은 부모세대가 자라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으나 최근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크게 커진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대 간 잦은 대화와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녀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부모가 더 많이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어머니와 아버지 10명 중 2명 정도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미취업 성인자녀의 용돈을 자녀가 고려하는 범위보다 더 많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10명 중 1명 정도는 자녀 결혼준비에 대해 자녀가 생각하는 범위보다 더 지원해야 대답했다. 최근 학령 자녀에 대해 학업은 물론이고 친구 관계나 휴식 시간까지 관리하고 책임지는 “매니저와 같은 부모님”에 대한 논의가 늘고 있다(Park and Abelman, 2004). 어찌면 일부 어머니와 아버지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 자녀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믿는지도 모른다.

3.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둘러싼 태도는 가족구성원과 가구의 특징에 따라 어떻게 다를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 가족구성원의 네 부문에 대한 태도를 종속변수로 한 순서로지스틱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s)을 실시하였다.

<표 4> 가족구성원들의 태도에 대한 순서 로지스틱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s) 결과

장년	남성 연령 성역할 태도	자녀의 대학 교육비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미취업 성인자녀(미혼)의 용돈				자녀 결혼준비(혼수 및 신혼집비용)					
		자녀	어머니	아버지	자녀	어머니	아버지	자녀	어머니	아버지	자녀	어머니	아버지	자녀	어머니	아버지			
		0.240**	0.244**	-0.043	0.196**	-0.003	-0.212**	0.185	-0.167	-0.130	0.139	-0.069	-0.132	0.090	0.050	0.082	0.099	-0.079	-0.030
어머니	41~45세	0.089	0.044	0.057	-0.210	-0.075	-0.005	0.110	-0.079	-0.051	-0.230	-0.020	0.015	0.110	0.110	0.216	-0.260	-0.151	0.187
	46~50세	0.027	0.082	0.079	-0.503**	-0.131	0.028	-0.136	0.110	0.216	-0.260	-0.151	0.187	0.110	0.208	0.596	0.110	-0.417	0.474
	51세 이상	-0.056	-0.275	0.368	-0.314	-0.337	0.263	0.101	0.208	0.596	0.110	-0.417	0.474	0.098	0.086	0.227	0.035	0.035	0.458
	고등학교	-0.122	-0.158	0.098	0.037	-0.074	0.098	0.121	0.086	0.227	0.035	0.035	0.458	0.035	0.086	0.227	0.035	0.035	0.458
	2년제 대학	-0.142	-0.085	0.325	0.106	0.067	0.085	0.324	0.371	0.246	0.877**	0.190	0.720**	0.877**	0.371	0.246	0.877**	0.190	0.720**
	4년제 대학 이상	-0.274	0.008	0.102	0.065	-0.039	0.015	0.231	0.143	0.237	0.310	-0.019	0.623**	0.310	0.054	0.207	0.265	0.241	-0.260
	전문직 또는 관리직	0.046	0.516	0.254	0.698**	0.093	0.277	0.231	0.054	0.207	0.265	0.241	-0.260	0.265	0.054	0.207	0.265	0.241	-0.260
	사무직	0.002	-0.068	-0.080	0.315	0.150	-0.034	0.128	-0.268	0.037	0.370	0.184	-0.143	0.370	-0.268	0.037	0.370	0.184	-0.143
	서비스직 또는 노동직	-0.065	-0.167	-0.092	0.147	0.065	0.029	-0.040	0.089	0.040	0.175	-0.039	-0.026	0.175	0.089	0.040	0.175	-0.039	-0.026
	1차산업직	0.098	-0.658	-0.371	0.718	0.997**	0.410	-0.002	0.060	0.340	0.049	-0.213	0.035	0.049	0.060	0.340	0.049	-0.213	0.035
성역할 태도	-0.024	-0.149	-0.001	-0.063	-0.158**	-0.091	-0.051	-0.153**	-0.069	0.018	-0.121	0.083	0.018	-0.051	-0.153**	0.018	-0.121	0.083	
자녀와의 관계: 불만족	0.121	-0.315**	-0.075	-0.169	-0.274**	-0.037	-0.042	-0.104	0.011	-0.074	0.013	0.020	-0.042	-0.104	0.011	-0.074	0.013	0.020	
아버지	41~45세	0.682**	0.158	0.131	0.405	0.062	0.165	0.239	0.322	0.174	0.305	-0.345	0.430	0.239	0.322	0.174	0.305	-0.345	0.430
	46~50세	0.596**	0.199	0.147	0.404	0.151	0.113	0.397	0.391	0.174	0.267	-0.364	0.182	0.397	0.391	0.174	0.267	-0.364	0.182
	51세 이상	0.611	0.438	0.239	0.693**	0.086	0.174	0.696**	0.510	0.156	0.158	0.181	0.154	0.696**	0.510	0.156	0.158	0.181	0.154
	고등학교	0.249	0.399	0.235	-0.001	0.362	0.528**	-0.062	0.066	0.328	-0.428	0.305	0.215	-0.062	0.066	0.328	-0.428	0.305	0.215
	2년제 대학	0.097	0.161	0.295	0.016	0.242	0.650**	0.088	0.327	0.598**	-0.598**	0.722**	0.356	0.088	0.327	0.598**	-0.598**	0.722**	0.356
	4년제 대학 이상	0.228	0.287	0.045	-0.114	0.440	0.446	-0.149	0.446	0.114	0.366	-0.633**	0.457	0.228	0.287	0.045	-0.149	0.446	0.457
	전문직 또는 관리직	-0.340	0.140	0.604	0.114	-0.102	0.626**	-0.226	0.121	0.257	0.188	-0.069	0.287	-0.340	0.140	0.604	0.114	-0.102	0.626**
	사무직	-0.553**	-0.228	0.421	0.063	-0.257	0.443	-0.080	0.295	0.210	0.038	-0.333	0.240	-0.553**	-0.228	0.421	0.063	-0.257	0.443
	서비스직 또는 노동직	-0.402	-0.299	0.041	0.089	-0.165	0.351	-0.075	0.331	0.221	0.042	-0.183	0.157	-0.402	-0.299	0.041	0.089	-0.165	0.351
	1차산업직	-0.789	-0.789	0.251	-0.281	-0.105	0.655	-0.188	-0.168	-0.074	0.123	0.229	0.157	-0.789	-0.789	0.251	-0.281	-0.105	0.655
성역할 태도	0.002	-0.208**	-0.296**	0.078	0.030	0.007	0.033	0.033	-0.001	0.045	0.036	-0.066	0.078	0.030	0.007	0.033	-0.001	0.045	
자녀와의 관계: 불만족	-0.093	-0.087	-0.201	0.035	-0.133	-0.270**	-0.038	-0.054	-0.228	-0.056	-0.053	-0.287	-0.093	-0.087	-0.201	0.035	-0.133	-0.270**	
가족 및 가족	자녀의 수	-0.232***	-0.104	0.008	-0.054	-0.161**	-0.147	-0.074	0.079	0.082	0.004	-0.077	0.089	-0.232***	-0.104	0.008	0.004	-0.077	0.089
	노부모 동거 여부	-0.046	0.219	0.154	0.183	-0.176	0.124	-0.095	0.131	0.308	0.130	0.171	0.181	-0.046	0.219	0.154	0.183	-0.176	0.124
	전세	-0.223	-0.259	-0.107	-0.109	-0.261	-0.143	-0.044	-0.159	0.014	-0.022	-0.267	0.000	-0.223	-0.259	-0.107	-0.109	-0.261	-0.143
	월세	-0.083	-0.177	-0.363	-0.005	-0.012	-0.268	0.205	-0.103	-0.137	0.145	-0.125	-0.165	-0.083	-0.177	-0.363	0.205	-0.103	-0.137
	농촌	-0.052	-0.032	-0.127	0.021	0.386**	0.147	0.085	0.210	0.165	-0.144	0.466**	0.601**	-0.052	-0.032	-0.127	0.021	0.386**	0.147
N				1,727	1,545	1,545	1,727	1,545	1,545	1,727	1,545	1,545	1,727	1,545	1,545	1,727	1,545	1,545	1,545

주: 1) * p < .01, ** p < .05, *** p < .01

먼저 자녀의 특징이 세 가족구성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자녀의 성역할 태도는 자녀의 네 가지 태도 모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다.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 대학원 교육, 미취업 시 용돈, 결혼비용에 경제적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족 관련 태도가 보수적이면 가족성원 간 유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세대 간 도움을 더 자연스럽게 여기게 된다(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때문에 성별 역할 구분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의 의무를 더욱 넓게 생각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성별을 보자. 기존 연구(Goldscheider, Thornton and Yang, 2001)에 따르면 아들이 딸보다 부모의 경제적 의무를 더 넓게 본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아들이 딸보다 자녀의 대학교와 대학원 교육에 대해 부모가 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 자신의 태도와는 물론이고 부모의 태도와도 별다른 관련이 없다. 연령에 따른 태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령 변수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자녀의 특징은 부모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자녀가 성역할 태도에 보수적인 태도를 가질 때 아버지는 자녀의 결혼준비에 경제적인 힘을 보태야 한다고 더 생각한다. 그리고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자녀의 대학 교육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의무를 더 넓게 본다.

어머니의 특징도 세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관련이 있었다. 이전 연구와 비슷하게(Hayhoe and Stevenson, 2007), 자녀와 관계에 만족하는 부모가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부모는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교육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더 생각한다. 자녀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어머니는 역시 부모가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와 미취업 자녀의 생활비를 도와줘야한다고 더 생각한다. 전업주부에 비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머니 역시 자녀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지원에 동의하는 편이다.

어머니의 특징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태도 역시 관련이 있었다. 40대 후반 어머니를 둔 자녀들에 비해 30대 어머니를 둔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의 대학원 교육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더 생각하는 편이었다. 어머니가 중졸 이하인 청소년보다 어머니가 2년제 대학 졸업인 청소년이 부모가 자녀의 결혼준비를 도와줘야한다고 더 생각한다.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자녀보다는 어머니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녀의 대학원 교육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중졸 이하인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대학을 다닌 아버지가 부모는 자녀의 결혼준비를 도와줘야 한다고 더욱 믿는 편이다.

아버지의 특징은 아버지의 태도와 상관성이 있다.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버지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의무를 당연히 여긴다. 중학교만 다닌 아버지에 비해 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닌 아버지가 부모는 자녀의 대학원 교육을 도와줘야 한다고 더 믿었다. 또한 중졸 아버지에 비해 전문대졸 아버지가 부모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의 생활비를 보태주어야 한다고 더 생각한다. 직업수준 역시 높아질수록 아버지는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를 넓게 여긴다. 무직 아버지에 비해 전문직이나 관리직에서 일하는 아버지들은 부모는 자녀의 대학원 교육을 도와야 한다고 더 생각하는 편이다.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진 아버지는 부모가 자녀의 대학 교육을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더 믿는 편이다.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의 관계에 불만족한 아버지는 자녀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다.

아버지의 특징과 자녀와 어머니의 태도는 서로 관련이 있다. 아버지가 30대인 자녀에 비해 아버지가 40대인 자녀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을 금전적으로 더 지원해야하며 아버지가 50대인 자녀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원 교육과 미취업 시 용돈을 도와야한다고 더 믿는다. 반면 아버지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준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의무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 그리고 무직인 아버지 자녀에 비해 사무직 아버지 자녀는 자녀의 대학교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의무 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 아버지의 특징과 어머니의 태도도 서로 관련이 있다. 아버지가 중졸 이하에 비해 전문대졸일 경우 어머니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준비에 도움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아버지의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인 경우 어머니는 부모는 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더 생각하는 편이다.

가구 및 가족의 특징도 세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Frankenberg, Lillard and Willis, 2002), 자녀의 수가 많은 가구에 살수록 부모의 자식에 대한 의무 범위를 좁게 보는 경향이 있다. 형제의 수가 많은 청소년들은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교육에 대해 덜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농촌에 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농촌에 사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의 결혼준비를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더 생각하는 편이며 농촌에 사는 어머니는 부모는 자식의 대학원 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더 생각하는 편이다.

4.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관련 태도의 일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표 3〉은 가족구성원끼리 부모의 지원 의무 범위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자녀가 부모보다 더 큰 지원을 당연시할 때일 것이다. 자식이 부모보다 부모의 부양 의무를 넓게 볼 경우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자식들이 성인이 된 후 부모의 자녀 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부모보다 자녀가 부모의 지원 범위를 더 많이 잡은 경우를 1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 의견이 일치하거나 자녀보다 부모가 부모의 지원 범위를 더 많이 잡은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로지스틱회귀 분석을 실시해본다.

먼저 청소년의 특징을 보자. 〈표 4〉에서 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부모의 의무를 넓게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자 고등학생에 비해 남자 고등학생이 아버지보다 대학원 교육비 지원 정도를 더 크게 보고 있다. 또한 그리고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표 4〉). 같은 맥락에서 성역할 태도가 보수적일수록 대학원 교육과 결혼준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범위에 대해 부모와 의견 불일치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어머니의 특징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의 의견 일치 정도가 달라졌다. 일을 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인 경우 부모의 미취업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가 다른 의견을 가질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만족하는 어머니에 비해 대학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여부에 대해 자녀와 다른 의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특징에 따라 아버지와 자녀의 의견 일치 정도가 달라진다.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의 경제적 지원 의무에 대해 아버지와 자녀가 의견이 비슷하거나 아버지가 자녀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머니가 30대인 가족보다 어머니가 40대와 50대인 가족에서 대학원 교육비와 결혼준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아버지와 자녀가 의견이 비슷하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자녀의 의견 일치 정도가 높아진다. 어머니가 중학교나 초등학교보다 고등학교나 4년제 대학을 다닌 경우 아버지와 자녀가 자녀의 대학원 교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의무에 비슷한 의견을 표현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인 경우보다는 사무직인 경우 자녀가 아버지보다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표 5> 부모와 자녀의 태도 불일치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s) 결과

	자녀의 대학 교육비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미취업 성인자녀(18세)의 용돈		자녀 결혼준비(혼수 및 신혼집)비용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청소년								
남성	-0.176	0.178	-0.012	0.412***	0.223	0.148	0.051	0.123
연령	-0.134	-0.091	0.003	0.013	0.098	-0.009	0.091	0.035
성역할 태도	-0.172	-0.053	-0.184**	-0.230***	-0.010	-0.006	-0.184**	-0.148
어머니								
41~45세	0.047	0.150	-0.016	-0.358***	0.006	-0.104	-0.347	-0.433**
연령 (준가점단: 40세 이하)	-0.048	-0.006	-0.033	-0.679***	-0.193	-0.329	-0.261	-0.538**
46~50세	0.465	-0.400	0.000	-0.866**	0.310	-0.372	0.148	-0.355
51세 이상	0.316	-0.372	-0.096	-0.416**	0.186	-0.139	0.061	-0.173
고등학교	0.289	-0.486	-0.184	-0.503	0.055	-0.023	0.347	0.148
2년제 대학	-0.227	-0.618	-0.103	-0.619**	-0.291	-0.077	-0.285	-0.077
4년제 대학 이상	-0.336	-0.164	0.535	0.395	0.292	0.088	-0.280	-0.016
전문직 또는 관리직	0.089	0.161	0.163	0.461**	0.465**	0.266	0.249	0.370
사무직	0.196	0.180	0.060	0.159	0.116	0.078	0.225	0.270
서비스직 또는 노동직	0.780	0.230	-0.168	-0.003	-0.182	-0.391	-0.784	-0.281
1차산업직	0.066	-0.095	0.025	-0.056	0.001	0.006	0.159	0.102
성역할 태도	0.707***	0.222	0.197	0.026	0.018	0.037	-0.018	-0.064
자녀와의 관계: 불만족								
41~45세	0.637	0.169	-0.046	-0.010	-0.176	-0.212	0.203	-0.511
46~50세	0.518	0.197	-0.206	0.139	-0.116	-0.213	0.404	-0.166
51세 이상	0.026	-0.193	0.049	0.405	-0.204	-0.111	0.116	-0.100
고등학교	-0.155	0.013	-0.326	-0.335	-0.283	-0.333	-0.538**	-0.580**
2년제 대학	-0.238	-0.263	-0.101	-0.294	-0.238	-0.191	-0.838**	-0.483
4년제 대학 이상	0.043	0.360	-0.338	-0.178	-0.452	-0.189	-0.578	-0.423
전문직 또는 관리직	-0.394	-0.856**	0.288	-0.281	-0.008	-0.367	0.473	0.401
사무직	-0.382	-1.206***	0.445	-0.344	0.133	-0.326	0.177	0.013
서비스직 또는 노동직	-0.070	-0.566**	0.444	-0.198	-0.003	-0.381	0.161	0.030
1차산업직	-1.024	-0.849	0.183	-0.503	-0.368	-0.625	0.028	-0.728
성역할 태도	0.097	0.238**	-0.001	0.070	0.035	0.072	-0.088	0.067
자녀와의 관계: 불만족	-0.135	0.200	0.080	0.269	0.141	0.257	-0.078	0.240
자녀의 용수								
노부모 동거 여부	-0.078	-0.080	0.100	0.166	-0.002	0.024	0.064	-0.006
노부모 동거 여부	-0.147	-0.358	0.306	0.248	-0.092	-0.545**	-0.048	0.278
현재	-0.026	-0.343	0.246	-0.136	0.037	-0.123	0.052	-0.265
기후준비태도	-0.136	0.117	-0.214	0.164	0.267	0.317	0.193	0.343
기후준비태도	-0.002	0.168	-0.300	-0.235	-0.221	-0.084	-0.446	-0.518**

1.727

주: 1) ** p < .01, *** p < .05, **** p < .01

아버지의 특징에서 직업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무직인 아버지에 비해 사무직, 서비스직/노동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성인자녀의 대학 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위에 대해 일치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진보적인 성역할 태도를 갖고 있을수록 대학 교육에 대해 자녀와 다른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았다. 또한 중학교나 초등학교만 다닌 아버지에 비해 고등학교를 다닌 아버지가 자녀의 결혼준비에 대해 자녀와 비슷한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역시 자녀의 결혼준비에 대해 어머니와 자녀가 비슷한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가구 및 가족의 특징을 보자. 가구 및 가족의 특징에 따라 부모와 자녀의 태도 일치 여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부모와 동거하는 가구에 사는 아버지는 미취업 자녀의 용돈 지원 여부에 대해 자녀와 비슷한 태도를 가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농촌에 사는 아버지는 자녀의 혼수 및 신혼집 지원에 대해 도시에 사는 아버지에 비해 자녀와 비슷한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V. 결론

본 연구는 2008년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범위를 바라보는 자녀, 어머니, 아버지의 태도를 살펴보았다. 세 가족구성원 모두 자녀의 대학 교육이나 혼인 준비는 물론 자녀의 대학원이나 졸업 후 용돈까지 어느 정도는 부모가 도와줘야 한다고 보는 편이다. 대학 졸업으로 부모의 의무는 끝이라는 사고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자녀는 물론이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도 더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하면 부모가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부모의 의무를 더욱 넓게 바라본다면 부모의 부담은 과거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미 현재 부모세대는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자신의 노후준비가 전보다 더욱 힘들어졌다. 여기에 자식이 졸업 이후에도 한동안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가능성은 부모들에게 매우 큰 경제적 스트레스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대 간 경제적 지원에 대한 희망은 그야말로 희망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성인자녀들의 교육과 뒷바라지를 위해 필요한 돈은 너무 커져 버렸다. 게다가 훨씬 늦어진 혼인연령과 출산연령으로 자녀가 성인으로의 전환기를 맞을 때 많은 부모들이 노년기에 접어들게 된다. 현재 부모들은 노후대비를 자신

이 해야 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이다(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과연 부모세대가 자신들의 노년기와 자녀들의 성인기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을까. 결국 많은 부모와 자녀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미래를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세대 간 지원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부모들은 충분한 보탬을 주지 못해서 커다란 죄책감을 갖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도움을 주지 못한 부모를 원망하면서 부유하지 못한 운명을 탓할 것이다. 이렇게 생겨난 집단적 부채의식과 불만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가족구성원들은 네 가지 지원 항목 범위 모두에 대해서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특히 이전부터 부모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여겨졌던 대학 교육이나 혼인 준비에 대한 가족 성원 간 태도 일치 정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대학등록금, 청년 실업, 신혼집 마련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자 가족들끼리 이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Lee, 2007).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 내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던 것 같다. 또는 가족 구성원들의 선택이 우연하게 일치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국 가족은 상호작용이 빈번하지 않더라도 타인들에게 화목한 가족으로 보이는데 능숙한 편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부부들은 사적인 장소에서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더라도 공적인 장소에서는 능란하게 가까운 관계를 과시할 수 있다. 세 구성원들은 설문에 대해 이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선택을 하였고 그 결과 높은 태도의 일치 정도를 보였을지도 모른다. 태도의 일치에 대한 본 논문의 결과는 질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녀, 부모 그리고 가족의 특징은 세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태도 일치 정도와 통계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딸보다는 아들이 세대 간 지원 범위를 넓게 보고 그래서 부모와 다른 의견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크다. 최근 남아 선호 사상은 거의 사라지고 반대로 딸을 선호하는 의견이 늘고 있다. 성인 이후 부모의 지원을 당연히 하는 아들의 태도는 딸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생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지 않은 어머니는 부모의 지원 의무를 좁게 생각하며 따라서 자녀와 다른 의견을 가질 가능성도 높다. 때문에 세대 관계가 안 좋은 가족들은 안타깝게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관계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못한 자녀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일 수 있고 자녀는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대체로 교육 또는 직업 수준이 높을 경우 부모의 성인자녀 지원에 적극적이며 따라서 자녀와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게 된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경우 이는 사회적 위치의 대물림을 일으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정진성, 2001; Semyonov and Lewin-Epstein, 2001).

21세기 이후 청년들은 졸업과 취업 이후 혼인까지 가는 성인기로의 전이를 지원 없이 끝내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점점 많은 부모들이 18세가 지난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가 보여주듯이, 많은 부모나 자녀들은 대학을 입학한 이후에도 부모의 지원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들의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각 세대들은 부모의 지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부모의 태도가 각 세대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중요한 계층적 함의를 갖고 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자녀의 사교육에 대한 지원이 세대 간 계급재생산에 핵심적 메커니즘 구실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중엽, 2003; 이건만, 2007). 마찬가지로 성인으로의 전환기에 부모의 지원은 계층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문화자본을 획득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배우자 선택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부모의 지원의 계급·계층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각도의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들의 시발점으로 최근의 전국조사 자료를 통해 변화한 태도를 각 가족 성원별로 묘사하고 있다. 후속 연구들은 세대별 태도가 소비나 지출 행위에 그리고 세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 논문을 끝내고자 한다. 세대 간 경제적 지원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들 중 다루지 못한 변수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부모의 노부모들에 대한 지원 여부이다. 노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을 자주 하는 부모들은 세대 간 결속(solidarity)을 중시하여 자녀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라고 한다(김두섭 외, 2000). 후속 연구들은 사회조사 자료에 있지 않은 변수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대 간 지원에 대한 태도를 측정된 사회조사 문항은 한계가 뚜렷하다.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태도는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미취업 자녀에 대한 용돈 지원을 바라보는 태도도 자녀가 취업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때문에 몇몇 이전 연구는 여러 조건을 주면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다(Goldscheider, Thornton and Yang, 2001). 하지만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구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 찬성 반대 여부를 살펴볼 수 없었다. 후속 연구는 다양한 상황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두섭·박경숙·이세용 (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

- 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 김종백·김준엽 (2009) “학업 성취 관련 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참여가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종엽 (2003) “한국 사회의 교육 불평등” 《경제와 사회》 59: 55-77.
- 김지경·송은경 (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남재량 (2006) “청년실업의 동태적 특성과 정책 시사점” 《노동리뷰》 16(4): 22-33.
- 반정호·김경희·김경희 (2005) “청년취업자의 노동이동 및 고용형태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7(3): 73-103.
- 배희선 (2008) “중노년기 가계의 성인 자녀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이전규모: 증여와 상속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4): 81-106.
- 여성부 (2003) 《전국가족조사 및 한국가족조사보고서》 여성부.
- 유홍준·현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은기수·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 이건만 (2007) “한국사회의 학벌주의와 계급갈등: 학벌자본의 이론화를 향해” 《한국교육사회학연구》 17(4): 63-85.
- 이기춘·조은정 (1992) “도시 신혼기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95-113.
- 이선이·김현주·이여봉 (2006)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관계 분석” 《한국인구학》 29(1): 97-131.
- 이여봉·이선이·김현주 (2008)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 긍정적 갈등적 상호작용: 국가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127-160.
- 장미혜 (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장지연·양수경 (2007) “승진대기기간의 성별격차와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41(4): 104-127.
- 정병은·이기홍 (2009) “노인이 인식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953-970.
- 정순희·선진영 (1997) “자녀 결혼비용 마련대책과 결혼비용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03-124.

- 정진성 (2001) “경제위기와 가족생활” 《한국인구학》 24(1): 91-121.
-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 진미석 (2006) “석사학위자들의 진로경로와 학위 효용가치 인식을 통해 본 일반 대학원 석사과정의 기능” 《한국교육학연구》 44(2): 135-159.
- 최강식·정진호 (2003) “한국의 학력간 임금격차 추세 및 요인분해” 《국제경제연구》 9(3): 183-208.
- 한국결혼문화연구소 (2010) 《2000-2009년 한국 결혼비용 변화추이 요약보고서》 한국결혼문화연구소.
- Altonji, Joseph, Fumio Hayashi and Laurence J. Kotlikoff (1997) “Parental Altruism and Inter Vivos Transfer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5(6): 1121-1166.
- Aquilino, William S (2005) “Impact of Family Structure on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 Economic Support of Adult Children over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Family Issues* 26: 143-167.
- Attias-Donfut, Claudine and Francois-Charles Wolff (2000)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Generational Transfers” In Sara Arber and Claudine Attias-Donfut (ed.) *The Myth of Generational Conflict: The Family and State in Ageing Societies*: 22-46 Routledge.
- Berry, Brent (2008) “Financial Transfers from Living Parents to Adult Children: Who Is Helped and Why?”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67(2): 207-239.
- Biddlecom, Ann, Napaporn Chayovan and Mary Beth Ofstedal (2002) “Intergenerational Support and Transfers” In Albert I. Hermalin (ed.) *The Well-Being of the Elderly in Asia: A Four-Country Comparative Study*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Bozick, Robert and Stefanie DeLuca (2011) “Not Making the Transition to College: School, Work and Opportunities in the Lives of American Youth” *Social Science Research* 40(4): 1249-1262.
- Buchmann, Marlis C. and Irene Kriesi (2011) “Transition to Adulthood in Europ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7: 481-503.
- Burr, Jeffrey A. and Jan E. Mutchler (1999) “Race and Ethnic Variation in Norms of Filial Responsibility among Older Pers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674-687.

- Descartes, Lara (2006) "Put Your Money Where Your Love Is: Parental Aid to Adult Childre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3: 137-147.
- Cox, Doland (1987) "Motives for Private Income Transfer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3): 508-546.
- Danzinger, Sheldon and David Ratner (2010) "Labor Market Outcomes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1): 133-158.
- Frankenberg, Elizabeth, Lee Lillard and Robert J. Willis (2002)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Transfers in Southeast Asia"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627-641.
- Goldscheider, Frances K. and Leora Lawton (1998) "Family Experiences and the Erosion of Support for Intergenerational Coresid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623-632.
- Goldscheider, Frances K., Arland Thornton and Li-Shou Yang (2001) "Helping out the Kids: Expectations about Parental Suppor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727-740.
- Grundy, Emily and John C. Henretta (2006)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A New Look at the Intergenerational Care Provided by the 'Sandwich Generation'" *Ageing & Society* 26: 707-722.
- Hayhoe, Celia Ray and Michelle L. Stevenson (2007) "Financial Attitudes and Inter vivos Resources Transfers from Older Parents to Adult Children"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 123-135.
- Hogan, Dennis P. and Nan M. Astone (1986)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09-130.
- Hughes, Mary Elizabeth (2003) "Home Economics: Metropolitan Labor and Housing Markets and Domestic Arrangements in Young Adulthood" *Social Forces* 81(4): 1399-1429.
- Kim, Hisam (2007)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Old-Age Income Security in Korea"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Lee, Yean-Ju and Hagen Koo (2006) "'Wild Geese Fathers' and a Globalized Family Strategy for Education in Korea"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nning Review* 28(4): 533-553.
- Lee, Yun-Suk (2007) "Adolescents' and Parents' Attitudes about Marriage in Korea: The Importance of the Frequency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s" *Development and Society* 36(2): 229-247.

- McGarry, Kathleen and Robert F. Schoeni (1997) "Transfer Behavior within the family: Results from the Asset and Health Dynamics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52B): 82-92.
- Natividad, Josefina N and Grace T. Cruz (1997) "Patterns in Living Arrangements and Familial Support for the Elderly in the Philippines" *Asia-Pacific Population Journal* 12: 17-34.
- Park, So Jin and Nancy Abelman (2004) "Class and Cosmopolitanism: Mothers' Management of English Education in South Korea" *Anthropological Quarterly* 77(4): 645-672.
- Pillemer, Karl and J. Jill Suitor (2002) "Explaining Mothers' Ambivalence toward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602-613.
- Ploeg, Jenny, Lori Campbell, Margaret A. Denton, Anju Joshi and Sharon Davies (2004) "Helping to Build and Rebuild Secure Lives and Futures: Financial Transfers from Parents to Adult Children and Grandchildren" *Canadian Journal on Aging* 23: S113-S125.
- Rossi, Alice and Peter H. Rossi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Semyonov, Moshe and Noah Lewin-Epstein (2001) "The Impact of Parental Transfers on Living Standards of Married Childr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 115-137.
- Shanahan, Michael J (2000) "Pathways to Adulthood in Changing Societies: Variability and Mechanisms in Life Course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667-692.
- Silverstein, Merrill and Vern L. Bengtson (1997)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and the Structure of Adult Child-Parent Relationship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429-60.
- Spilerman, Seymour (2004) "The Impact of Parental Wealth on Early Living Standards in Israe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0(1): 92-122.
- Ward, Russell, John Logan and Glenna Spitze (1992) "The Influence of Parent and Child Needs on Coresidence in Middle and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209-221.

Attitudes about Parental Economic Support to Young Adult Children: Comparisons among Children, Mothers and Fathers

Yun-Suk Lee

Recently increasing young adults have experienced serious economic difficulties in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and so a great deal of parents have to help their children financially even well after children finish their schools. Utilizing the 2008 Social Survey, a nationwide representative survey collected by the Statistics Korea, this paper examines how children, mothers, and fathers think about parental support to adult children. Respondents of the 2008 Social Survey answer how much parents support economically to their children about the following four items: college education, graduation school education, spending money while searching for jobs, and marital preparation. Analyzing a sample of 1,727 high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I find that the three family members generally accept economic support to the above items as part of parental duties. Also comparisons of the three family members' attitudes indicate that they usually reach the consensus about the dutiful scope of parental support to adult children. Logistic regressions reveal that male teens and children with conservatism are more likely to believe in wider scope of parental economic duties. And parents who are on good terms with children and are high in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levels are more willing to support adult children. I conclude with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Key Words: Parents, Adult children, Economic support